

아동의 대인지각과 문제해결 행동 및 사회적 선호도와와의 관계*

The Perceptions of Parents, Family, Self, and Peers in School -Age Children Links with Problem-Solving Behaviors and Social Preference*

에딘버러대학교 사회사업학과
박사후연수과정 황 옥 경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 수 이 재 연

Dept. of Social Works, Edinburgh University
Post-doctoral Researcher : Hwang, Ock-Kyeung
Dept. of Child Welfare and Studies, Sook-Myung Univ.
Professor : Lee, Jea-Yeon

◀ 목 차 ▶

- | | |
|------------|------------|
| I. 서 론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논의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children's perceptions of interpersonal relations (parents, family, and peers) and those of self, and to examine how the perceptions are related to problem-solving and social preferenc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625 children of 5th and 6th grade in 4 primary schools in Taejeon City.

Results showed positive correlations among four measures of social perceptions (to parents, to family, to peer, and to self). Therefore we have found generalization among children's representations across four interpersonal domains- that is, parents, family, self, and peer.

Children's problem solving-behaviors were most significantly related with parents/family domains among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the case of boys, direct path between the perceptions of parents/family and problem solving-behavior was significant, whereas girls' perception of parent/family was associated with problem solving-behavior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through girls' perceptions of self and peer.

Social preference was highly correlated with perceptions of peer and of father. This study has found that both boys' and girls' peer representations were established for the role as mediators between parents/family representations and peer ratings of social preference. These findings revealed that the impact of family representations on peer rejection was mediated by children's beliefs about their peers.

* 본 논문은 첫 번째 연구자의 박사학위논문의 일부 임.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아동기 대인관계 역량의 근원과 아동이 보이는 사회적 부적응의 양상에 대한 여러 연구들은(Cohn, Patterson & Christopoulos, 1991; Ladd, 1992) 또래역량의 발달이 가족 생활 경험과 중요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이 두 영역내에서 관찰 될 수 있는 행동특성간의 관계와 유형에 초점을 두고 보고해 왔다. 이를 테면, 인기아동과 거부아동 부모의 양육행동의 차이에 관한 보고(Dishion, 1990)라든지, 불안정한 애착은 공격행동을 유발하고, 부정적인 문제해결 행동과 관련되어 있다는 보고들(Booth, Rose-Krasna, & Rubin, 1991; Suess, Grossman, & Sroufe, 1992)이 이러한 맥락의 연구들이다.

그러나 근래 들어서 “관계양식(mode of linkage)”이나 “수행기제(carrier mechanism)”에 대한 관심으로 아동의 또래역량 발달의 원인이 되는 내적기제(internal mechanism)가 대인관계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게 되었다(Gottman, 1991; Ladd, 1991, 1992). 이는 아동의 행동을 유발하게 되는 내재화된 지각체계의 흐름을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단일차원의 관계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관찰될 수 있는 특정행동과의 연관성을 설명해 오던 종래의 연구와는 다른 것이다.

한 대인관계에서의 경험을 통해 내재화된 지각의 유형이 다른 대인관계로 일반화되는 가에 대한 이와 같은 연구는 Bowlby(1973)의 “내적 실행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이라는 개념과, 사회인지이론가들의 “대인관계적(interpersonal: Safran, 1990)”이라거나 “관계적(relational: Baldwin, 1992)”이라는 개념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이에 따르면 아동이 대인관계를 맺었던 경험은 다른 사람에 대한 지각, 추론, 예상을 발달시키고, 이는 실제 행동으로 표현되므로(Westen, 1991)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내재화시킨 지각을 토대로 아동은 자신의 가치를 평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행동예상과 지각을 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는 부모, 가족과의 조

기 경험과 이후에 아동의 또래역량간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는 어떤 매개변인이 있으며,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 것은 부모, 가족에 대한 지각의 영향을 받는 또다른 대인지각을 통해서 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의 연구는 가족생활 경험과 아동의 사회적 역량간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는 잠재적 중개변인으로서 대인관계에 대한 아동의 지각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 특정 발달영역에 미치는 대인지각의 효과보다는 다양한 대인지각들이 서로 어떠한 과정으로 연결되어 아동의 사회적 행동을 유도하게 되는 지를 중시한다.

이렇듯 부모, 가족과 또래역량의 관계에서 내재화된 아동의 지각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새로운 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 구성요소들간의 관련성, 즉 지각과 예상의 관계와 초기 경험에 의해 형성된 아동의 대인지각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일반화되어 자기와 다른 사람에 대한 지각의 기초가 된다는 사회인지이론과 애착이론의 이론적 가정은 비교적 연구되지 않은 채로 있다.

대인지각의 구성요소들간의 관계와 일반화에 대한 이와 같은 연구의 부진은 내재화된 아동의 지각체계가 어떠한 과정으로 사회적 행동과 연관되는지, 그리고 사회적 행동과의 관련성에 있어서 각 대인지각의 기여양상은 어떠한 지에 대한 연구의 부진으로 이어졌다. 가족과의 초기 경험은 자기 효능감, 정서적 이해(Cassidy, Parke, Butkovsky, & Braungart, 1992)와 같은 인지적 평가나 아동의 공격성(MacKinnon-Lewis, Volling, Larnd, Dechman, Rabiner, & Curter, 1994) 등의 사회적 행동 기제를 통해서 또래역량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보고되었을 뿐, 또래역량의 발달에서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 대인지각에 대한 정보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이러한 연구의 부진을 야기하게 된 것은 부분적으로는 대인지각과 사회적 역량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대부분 자기(Bell-Dolan, Foster, & Sikora, 1989), 또래(Hartup, 1983), 그리고 부모(Patterson, Kupersmidt, & Griesler, 1990) 중 어느 특정 대상에 대한 아동의 지각만을 연구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국내에서 진행된 부모, 가족과 또래관계에 대한 연구는

이들 변인의 행동적 차원의 독립적 영향을 밝혀 오던 종래의 연구 형태에 머물러 있어 대다수 연구가 또래지위에 따른 아동의 행동특성을 설명하거나 (예: 정영인, 1988) 또래지위를 결정하는 환경요소 (정미자, 1995)를 규명해 왔을 뿐이다. 따라서 문제해결 행동 및 또래지위에 대한 대인지각의 내적기제의 흐름을 파악하여 보다 유용한 정보체계로 정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적인 자료에 대한 요구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 가족, 자기, 그리고 또래에 대한 아동의 지각들간의 관련성 및 대인지각과 행동예상의 관계를 파악하고, 자기와 또래에 대한 아동의 지각이 부모, 가족과 또래간 문제해결 행동 및 또래지위를 연결시켜 주는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 지를 탐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이론적으로는 대인지각 및 자가지각간의 관련성을 밝혀 봄으로써 아동의 대인지각 연구를 보다 포괄적으로 한다는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인지각이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경로를 확인함으로써 대인지각의 사회적 역할로서의 전이에 관한 일차적인 자료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적인 측면에서는 예상, 감정, 사고, 행동은 경험을 통해서 변화할 수 있는 것이므로 (Elicker, Englund, & Sroufe, 1992), 본 연구결과를 대인부적응 아동에 대한 상담, 치료현장에서 효과적인 지도를 할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2. 연구문제

- 1) 아동의 대인지각 및 자가지각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1) 부모, 가족, 자기, 그리고 또래에 대한 아동의 지각은 서로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2) 부모와 또래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행동예상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2) 아동의 대인지각 및 자가지각은 문제해결 행동에 어떠한 양상으로 기여하는가?
- 3) 아동의 대인지각 및 자가지각은 사회적 선호

도에 어떠한 양상으로 기여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대인지각

Bowlby의 “내적 실행모델”이라는 개념과 사회인지이론가들의 “대인관계적(Safran, 1990)”이나 “관계적(Baldwin, 1992)”이라는 개념은 사회인지 구성요소인 지각과 예상의 관계를 밝히고, 한 대인관계에서 내재화된 지각의 유형이 다른 대인관계로 일반화되는 가에 대한 연구를 구체화시켰다. 이에 따르면, 한번 지각된 정보는 예상기제를 발달시키므로써 또 다른 상황이나 또 다른 개인에게까지 일반화되어 아동의 현재적인, 현실적인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예컨데,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토대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한 아동은 그들에 대한 또래의 행동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지각과 예상을 하게 되어 또래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것이다(Putallaz & Heflin, 1990).

따라서 대인지각과 대인 행동예상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은(Cohn, et al, 1991) 지속적으로 아동의 부모, 가족과의 경험이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예상과 관련되어 적응적이거나 부적응적인 대인관계를 지속적으로 갖게 한다는 것을(Safran, 1990) 강조한다. 이러한 주장은 대인지각이 아동의 사회 적응을 유도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대인지각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부모, 가족, 또래, 그리고 자기에 대한 지각들이 상호 어떤 관련이 있는 가, 그리고 이 대인 지각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아동의 또래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포괄적이고 심도있는 연구는 아니었다. 따라서 아동이 직면하는 필연적인 인간관계라 할 수 있는 부모, 가족, 또래 그리고 자기에 대한 지각이 서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아동의 사회적 행동과 연결되는 지를 파악하는 것은 앞서 제기한 주장을 보다 체계적인 관점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의미있는 작업인 것이다.

2. 대인지각 및 자기지각과 문제해결 행동

가족에 대한 지각과 문제해결 능력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들은 가족구성원의 특성이나 가족환경, 가족간의 상호작용 유형과 아동의 문제해결 행동과의 관계(Rueter & Conger, 1995), 가족의 문제해결 행동 유형과 아동의 문제해결 행동유형의 상관(Blechman & McEnroe, 1985), 그리고 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가정환경 변인의 영향(Bryant & DeMoris, 1992)에 관한 것이 주류를 이루었다. 아동의 부모지각에 대한 지각과 문제해결 행동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 역시 양육행동과 아동의 문제해결의 효과성 검증(McColloch, Gilbert, & Johnson, 1995)이나 문제해결 책 제시의 수(서찬원, 1995)와 같은 인지적 문제해결 능력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의 연구들은 가족, 부모와의 초기 경험이 아동의 내재화된 지각체계와 어떠한 관련성을 갖고 사회적 행동과 연결되는지를 탐색하지는 못했다.

또래지각과 문제해결 행동에 대한 연구는 가족이나 부모와 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연구의 양상과는 또 다른 측면을 보여 주고 있는데, 또래관계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것에 비추어 볼 때, 또래지각 그 자체와 문제해결 행동의 관련을 탐색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는 또래에 대한 연구가 주로 부적응을 보이는 또래를 평가해 내려는 목적을 갖은 연구들이 대부분으로 한 아이의 행동에 대한 진술 즉 '이 아이는 어떤 아이인가'의 또래역량 평가(Hatzichristou, & Hopf 1996)와 관련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또래집단내에서 아동들의 상대적 역량을 판단하여 또 다른 종속변인과의 상관을 탐색한 것이므로 아동자신이 또래들과 맺고 있는 관계의 질이나 아동자신의 또래에 대한 지각이 문제해결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한 정보를 주는 것과는 다르다.

3. 대인지각 및 자기지각과 또래지위

또래들과의 관계에서 표현되는 아동의 행동은 또래지위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아동의 행동은 대

인지각의 영향을 받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하면서도 다양한 대인관계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또래지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또래관계에 대한 부모 양육행동의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또래수용이나 거부를 촉진하는 중요한 한 요인을 부모라고 보고(Putallaz & Heflin, 1990), 주로 부모와 자녀의 행동적 교류와 유형이 또래수용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해 왔다. 이를 테면, 거부아동은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교사로 부터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지각한다거나(Patterson, et als., 1990), 또래지위와는 상관없이 인기, 거부아동 모두 부모, 가족에 대한 지각이 긍정적이라는 보고 등이다(Hart, Dewolf, Wozniak, & Burts, 1992).

이와 같은 상반된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또래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것은 가족과의 초기 경험에서 비롯된다는 데에는 많은 연구자들이(Dodge & Feldman, 1990) 동의한다. 따라서 부모, 가족에 대한 지각이 아동의 자기와 또래에 대한 지각으로 전이 될 수 있다는 가정이 애착과 사회인지이론의 내재화된 지각이라는 개념을 통해 가능하며, 이러한 자기와 또래에 대한 아동의 지각은 또래지위 형성에 있어서 중개변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인지각들의 또래지위에 대한 기여 양상을 확인하는 것은 또래관계에 대한 부모의 역할을 확인하는 것으로 의미있는 작업이다.

아동의 자신에 대한 지각 또한 또래거부와 높은 상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White & Kinstner, 1992) 거부아동은 전반적 자아가치감이 낮고 또래에 의해 자신이 수용되고 인기있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데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한 반면에, 인기아동은 보다 긍정적으로 자기를 지각하였다(Bell-Dolan, et al., 1989).

또래에 대한 지각에서도 거부아동과 소외아동은 또래를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친한 친구들과조차도 지속적으로 지지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en, Rubin, & Sun, 1992). 그러나 아동의 또래에 대한 지각이 사회적 역량발달과 상관이 있다는 보고(Newcomb, Bukowski, & Pattee, 1993)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또래지각에 대한 연구들은 단순히

또래들에게 얼마나 수용되는 지와 또래가 보이는 행동과의 관련성에 관한 것이었다. 따라서 사회적 관계에서의 또래에 대한 아동의 주관적인 지각이 아동의 사회적 선호도와 어떤 관련이 있는 지에 대한 연구는 의미있는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전지역의 4개 초등학교 5, 6학년에서 각각 2개 학급아동 625명이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응답이 부실한 아동을 제외한 603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연구대상은 계층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교사들의 평가에 의해 대체로 중류가정의 아동들이 다니는 것으로 판단된 초등학교에서 표집이 이루어졌다.

대상 아동의 성구성은 남아가 51.9%, 여아가 48.1%였으며, 5학년이 49.3%, 6학년이 50.7%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부모의 학력은 어머니, 아버지 모두 고졸이 각각 55.2%, 38.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대졸 26.4%, 36.1%였다. 부모의 직업은 어머니는 전업주부가 64.2%, 자영·상공 13.4%, 일반사무직 11.9% 순이었고, 아버지의 경우는 일반사무직 45.1%, 자영상공 23.5%, 기술·관리직과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19.9%였다.

2. 측정도구

1) 부모에 대한 지각척도

부모의 행동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측정하기 위해 박영애(1995)가 개발한 양육행동 척도 중에서 '어머니는 나에게'와 '아버지는 나에게' 척도의 온도정·수용요인 37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는 부모 양육행동 중 아동의 내재화된 지각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고(Bowby, 1992), 대인관계를 맺는 아동의 능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양육요인은 온도정·수용이라는 선행연구(Putallaz et al., 1990)에

따른 것이다. 척도의 점수체계는 4점 척도였고, 체점은 각 차원 마다 그 강도가 높아지는데 따라 높은 점수를 주었다.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어머니는 나에게'와 '아버지는 나에게' 각각 .94와 .96이었다.

2) 가족에 대한 지각척도

가족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평가하기 위해서 Dubow와 Ulman(1989)이 제작한 사회적 지지 평가 도구(Social Support Appraisals Scale : APP) 중에서 가족에 대한 11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아동들이 가족들로 부터 자신이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는 대상인지, 가치있는 존재로 여겨지는지, 그리고 가족이나 또래의 일원으로 받아 들여지는지의 정도를 아동 자신이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척도의 점수체계는 5점 척도로 가족을 지지적이라고 지각할수록 높은 점수를 주었다.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 α)는 .89이었다.

3) 자기와 또래에 대한 지각척도

또래와 관계를 맺는 상황 속에서 아동은 자신과 또래를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Rudolph 등(Rudolph, Hammen, & Burge, 1995)이 개발한 또래와 자신에 대한 지각 평가 도구(Perceptions of Peer and Self Questionnaire : POPS)를 번안하여 문항양호도 분석과 신뢰도 검증을 거쳐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또래에 대한 지각을 평가하는 12문항과 또래와의 관계속에서 느끼는 자신에 대한 지각을 평가하는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신에 대한 지각은 Cassidy(1990)의 자기지각에 대한 두 가지 차원론적 개념, 즉 또래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사회적 역량에 대한 인지적 지각과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는지의 자아에 대한 지각된 가치를 평가 하도록 되어 있다.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 α)는 자기지각이 .82, 또래지각이 .79이었고 재검사신뢰도는 .85와 .82였다.

4) 부모 행동예상 및 또래 행동예상 척도

부모와 또래에 대한 아동의 행동예상을 평가하기 위해 Rudolph, Hammen, 그리고 Burge(1995)가 제작

한 사회적 행동예상척도(Children's Expectations of Social Behavior Questionnaire: CESBQ)를 번안하여 각 문항과 응답내용의 타당도 검토했고 신뢰도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사용하였다. 사회적 행동예상척도(CESBQ)는 아동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상호교류가 가상이야기로 표현되어 있으며, 각각의 가상상황이 아동 자신에게 실제 일어났을때 ① 지지·위안·수용 ② 무관심·회피 ③ 비평·거부·적대행동의 3개의 응답내용 중 어머니와 또래에게서 예상되는 행동을 하나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3개의 응답내용은 각각에 대해서 2, 1, 0으로 채점된다.

원척도는 어머니와 또래 행동예상에 대해서만 각각 15문항씩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아버지 행동예상 질문지는 동일한 가치를 지닌 척도를 대상으로 조사할 때만이 어머니 행동예상과의 수평적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어머니척도와 동형척도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행동예상의 대상에 따라서 인칭이 달라졌고 문항 체험의 현실적 동질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두 개 문항의 표현이 조정되었다. 이 경우에도 제시된 가상상황의 의미나 가치가 어머니 문항과 동일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어머니 행동예상이 .79, 아버지 행동예상이 .80, 그리고 또래 행동예상이 .85로 나타났다. 재검사 신뢰도는 각각에 대해서 86, 86, 그리고 89로 나타났다.

5) 문제해결 행동척도

문제해결 행동 척도는 척도구성을 위한 문항선정과 제작과정에서 기존의 대표적인 몇가지 척도들이 참고로 사용되었으며, 본 척도 제작의 접근방식 및 문항 구성과정과 채점방식은 또래와의 가상적 갈등 상황에서 아동의 문제해결 행동 양상을 보려는 Rudolph(1993)의 Interpersonal Problem-Solving Questionnaire(IPSQ)가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였다. 기존 척도의 문항들을 번안·수정해서 사용한 문항들을 제외한 일부 문항은 또래간 문제해결 행동에서 자주 사용되어온 내용인 또래에 의해 좌절되거나, 또래에 의해 화가 나거나, 또래집단에 속하려고 하는 등의 갈등상황(Rubin & Daniels-Bierness, 1983)

을 내포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문제해결 행동은 제시된 사회적·주장적, 회피적·수동적, 그리고 적대적·지배적 문제해결 행동의 3개 응답 내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 각각은 2, 1, 0으로 채점되었다.

27개의 예비문항과 각 문항에서 제시될 3가지 응답 내용에 대한 열 명의 아동학 전공자와 두 명의 초등학교 교사의 내용타당도 검토 결과 아동의 대인관계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다른 문항의 가상상황과 유사하거나, 세 가지 응답 내용의 변별력이 떨어져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일곱 개의 문항은 제외하였다.

이와 같이 구성된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문항양호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평균이 너무 높거나 낮은 문항, 그리고 문항을 제외한 경우에 내적 합치도가 높아지는 문항은 없었다.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74이었고, 재검사 신뢰도는 .73으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다.

6) 또래지위 평가

또래집단에서 아동의 상대적 위치를 알아 보고자 또래지명법을 사용하였다. 학급친구들로 부터 지명 받은 수로 Coie 등(Coie, Dodge, & Coppotelli, 1982)의 분류에 따라 대상 아동들의 사회적 선호도와 사회적 영향력 점수를 산출하였다. 학급친구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 지명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질문지에 학급 아동명단을 동봉하였고, 이를 참조할 것을 일러 두었다.

3.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는 질문지들의 문항표현 및 반응회독력 평가를 위한 사전조사와 연구절차와 연구변인별 질문지들의 신뢰도 검증을 위한 예비조사를 3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의 최종단계인 본조사는 1996년 7월 4일 부터 약 일주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아동이 가상상황에 대해 응답해야 하는 행동예상 질문지와 문제해결 행동 질문지는 반응률을 높이고 아동의 이해를 돕고자 제시된 가상상황을

검사 실시자가 일괄적으로 읽어 주었고(예: Baker, Barthelmy, & Kurdek, 1993), 아동은 이에 따라 제시된 3개의 응답 중 하나를 고르도록 하였다.

4. 자료분석

자료는 SA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대인지각 및 자기지각과 행동예상의 관계, 그리고 대인지각 및 자기지각과 문제해결 행동 및 또래선호도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상관분석과 Fisher의 z점수 변환을 하였다. 대인지각 및 자기지각이 아동의 문제해결 행동과 또래지위에 어떠한 양상으로 기여하는가의 매개변인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서 중다회귀분석을 이용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대인지각 및 자기지각의 상호상관 분석

부모, 가족, 자기, 그리고 또래에 대한 아동의 지각들간의 구체적인 관계양상을 알아보기 위한 상호상관은 지각의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분석될 수 있다. 먼저, 어머니와 아버지, 또래, 그리고 자기에 대한 지각을 분석한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을 보면, 아동의 대인지각 및 자기지각은

모두 유의한 수준에서 서로 정적 상관이 있으나 그 세부사항에서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상관의 크기에 대한 Fisher의 z점수 변환 결과, 아버지에 대한 지각보다는 어머니에 대한 지각과 자기(z=2.24, p<.05)와 또래(z=2.42, p<.01)에 대한 지각과의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아의 또래지각은 아버지에 대한 지각보다 어머니에 대한 지각의 상관이 더 높게 나타나(z=2.09, p<.05) 어머니에 대한 지각이 또래에 대한 지각에 더 민감하게 작용함을 보여 주었다.

자기지각과 또래지각의 상관은 Fisher의 z점수 변환에 의해서 부(z=3.16, p<.001), 모(z=5.21, p<.001)에 대한 지각과 자기지각의 상관 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다. 가족지각과 자기지각의 상관도 부(z=3.16, p<.001), 모(z=5.21, p<.001)지각과 자기지각의 상관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온정·수용성이라는 단일요인에 대한 아동의 지각보다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인 가족의 지지, 지원이 아동의 자기지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회인지 구성요소인 아동의 대인지각과 대인 행동예상의 관련성에 대한 분석결과, <표 1>에 제시된 바대로, 모든 영역에서 상관을 발견할 수 있었다. 부모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또래 행동예상간에 나타난 정적상관은 부모를 애정적, 수용적으로 지각하게 되면 아동은 또래도 지지적, 수용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예상한다는 의미이다. 또래 행동예상과 어머

<표 1> 대인지각 및 자기지각과 행동예상 측정치의 상호상관 분석

(N=603)

		1	2	3	4	5	6	7
대인지각	1. 어머니							
	2. 아버지	.31***						
자기지각	3. 가족	.60***	.51***					
	4. 또래	.42***	.34***	.23***				
	5. 자기	.39***	.31***	.54***	.70***			
	6. 어머니	.62***	.43***	.44***	.30***	.27***		
행동예상	7. 아버지	.43***	.62***	.38***	.23***	.22***	.62***	
	8. 또래	.42***	.36***	.39***	.46***	.37***	.48***	.43***

***p<.001

니 지각의 상관은 또래 행동예상과 아버지 지각의 상관보다 더 높았는데($z=1.77, p<.05$) 이를 통해 어머니에 대한 아동의 지각이 아버지에 대한 지각보다 또래 행동예상에 더 크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2. 대인지각 및 자기지각의 문제해결 행동에 대한 기여양상

부모, 가족, 또래, 그리고 자기에 대한 아동의 지각이 어떠한 양상으로 문제해결 행동에 기여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자기지각 및 각 대인지각과 문제해결 행동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부모/가족에 대한 지각이 자

기지각에 비해서 대인 갈등상황에서 아동의 문제해결 행동에 보다 크게 작게 작용하였다($z=2.61, p<.01$). 여아의 경우, 부모/가족지각($z=2.98, p<.001$), 또래지각($z=3.87, p<.001$), 그리고 자기지각($z=3.03, p<.001$)과 문제해결 행동의 상관이 남아보다 높게 나왔고,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지각과 문제해결 행동의 상관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남아의 경우에는 아버지(14)보다 어머니에 대한 지각(22)의 상관이 더 높았다($z=2.75, p<.01$).

자기지각과 또래지각이 부모/가족에 대한 지각과 문제해결 행동간의 관계를 증개해 주는 변인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MacKinnon-Lewis, 1994)을 이용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모/가족 지각은 독립변인으로, 자기지각과 또래지각은 각각 매개변인으로, 그리고 문제해결 행동은 종속변인으로 각 단계에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부모/가족에 대한 남아의 지각은 문제해결 행동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예언력을 가질 뿐 자기지각을 통한 간접적인 효과, 즉 자기지각 변인의 매개변인의 역할은 발견되지 않았다(그림 1 참조). 남아의 경우 <표 3>에서 볼수 있듯이 부모/가족지각은 자기지각을 19%, 문제해결 행동을 7% 예언해 주었다. 부모/가족지각과 자기지각의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등식 3을 보면 부모/가족에 대한 지각만이 문제해결 행동을 예언하는데 유의한 수준에

<표 2> 대인지각 및 자기지각과 문제해결 행동 측정치간의 상관분석

대인지각 및 자기지각	문제해결 행동		
	전체	남	여
부모/가족	.34***	.27***	.40***
어머니	.26***	.22***	.31***
아버지	.22***	.14**	.30***
가족	.37***	.31***	.40***
또래	.29***	.21***	.37***
자기	.23***	.16**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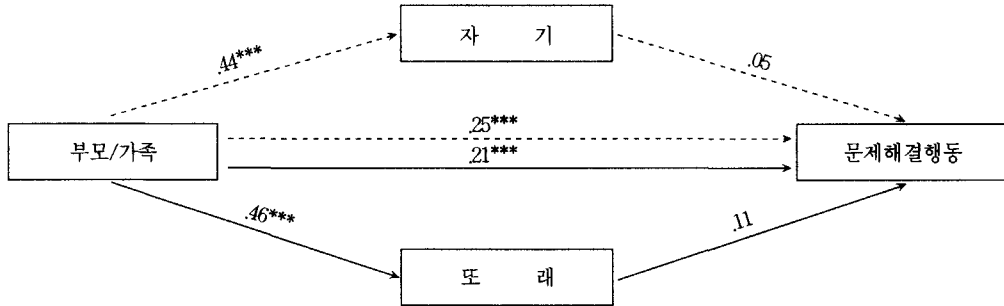
** $p<.01$, *** $p<.001$

<표 3> 남아의 부모/가족과 자기지각의 문제해결 행동 측정치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예측변수	결과	Standardized Beta	p값	Adjusted R ²
1. 부모/가족	자기	.44	.0001	.19
2. 부모/가족	문제해결 행동	.27	.0001	.07
3. 부모/가족	문제해결 행동	.25	.0001	.08
자기		.05	.4163	.08

<표 4> 남아의 부모/가족과 또래지각의 문제해결 행동 측정치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예측변수	결과	Standardized Beta	p값	Adjusted R ²
1. 부모/가족	또래	.46	.0001	.21
2. 부모/가족	문제해결 행동	.27	.0001	.07
3. 부모/가족	문제해결 행동	.21	.0006	.08
또래		.11	.0634	.08



**p<.001 점선은 자기지각, 실선은 또래지각의 경우임

<그림 1> 남아의 부모/가족, 자기, 또래지각의 문제해결 행동에 대한 경로모형

<표 5> 여아의 부모/가족과 자기지각의 문제해결 행동 측정치에 대한 중다회귀 분석

예측변수	결과	Standardized Beta	p값	Adjusted R ²
1. 부모/가족	자기	.45	.0001	.21
2. 부모/가족	문제해결 행동	.40	.0001	.16
3. 부모/가족	문제해결 행동	.33	.0001	.18
자기		.15	.0110	.18

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지각의 문제해결 행동에 대한 매개변인의 역할에 대한 분석결과(표 4 참조)에서도, 부모/가족에 대한 남아의 지각은 또래지각을 유의한 수준에서 21% 예언해 주었지만, 등식 3에 나타난 바 대로, 부모/가족에 대한 남아의 지각은 또래간 문제해결 행동에 직접효과만 있을 뿐, 또래지각을 통한 간접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부모와 가족을 온정적, 수용적, 지지적이라고 남아가 지각할 경우에, 이러한 가족에 대한 남아의 지각은 또래간 갈등상황에서 사회적, 주장적, 회피적, 수동적인 문제해결 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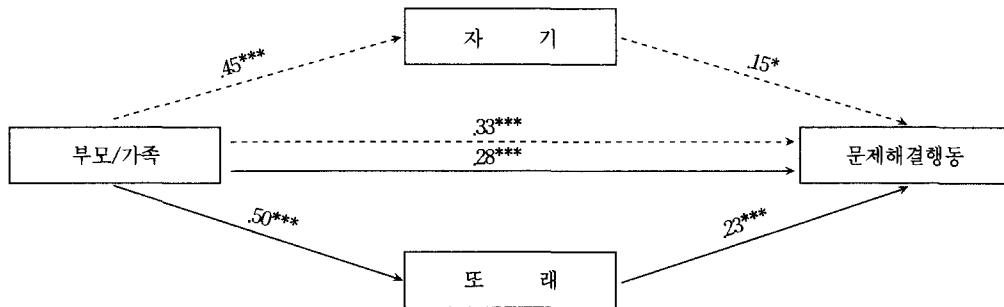
부모 가족에 대한 여아의 지각은 남아와는 달리 또래간 문제해결 행동에 직접효과와 자기지각과 또래지각을 통한 간접효과가 모두 나타났다(그림 2 참조).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여아의 부모/가족지각은 여아의 자기지각을 21%, 또래간 문제해결 행동을 16% 예언해 주었고, 부모/가족에 대한 지각

과 자기지각의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가족과 자기지각은 모두 유의한 수준에서 문제해결 행동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또래 상황 속에서 자기에 대한 여아의 지각은 또래간 문제해결 행동의 상황에서 부모/가족의 효과를 증대해주는 매개변인의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여아의 또래지각에서(표 6 참조), 부모/가족지각과 또래지각의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등식 3을 보면, 부모/가족 지각의 문제해결 행동에 대한 설명력은 20%이며, 이때 또래지각도 유의한 수준에서 예측력을 지니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아의 부모/가족에 대한 지각은 또래 지각을 매개로한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문제해결 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해 주었다. 부모/가족에 대해 여아가 긍정적으로 지각하면 여아의 또래지각의 긍정성을 예측해 주고, 이것은 다시 또래지각을 통해 사회적, 주장적인 또래간 문제해결 행동에 간접효과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그림 2 참조).

<표 6> 여아의 부모/가족과 또래지각의 문제해결 행동 측정치에 대한 종다회귀분석

예측변수	결과	Standardized Beta	p값	Adjusted R ²
1. 부모/가족	또래	.50	.0001	.25
2. 부모/가족	문제해결 행동	.40	.0001	.16
3. 부모/가족	문제해결 행동	.28	.0001	.20
	또래	.23	.0002	.20



*P<.05, p***<.001 점선은 자기지각, 실선은 또래지각의 경우임.

<그림 2> 여아의 부모/가족, 자기, 또래지각의 문제해결 행동에 대한 경로모델

<표 7> 대인지각 및 자기지각과 사회성 측정 점수의 상관분석

(N=603)

	사회적 선호도			사회적 영향력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부모/가족	.17***	.18**	.15*	.11**	.09	.13*
어머니	.13**	.16**	.09	.11**	.10	.13*
아버지	.19***	.17*	.19**	.08	.06	.10*
가족	.14***	.16**	.12*	.09*	.07	.11
또래	.25***	.32***	.17**	.09*	.06	.12*
자기	.17***	.23***	.12*	.12**	.12*	.11

*p<.05, **p<.01, ***p<.001

3. 대인 지각 및 자기지각의 사회적 선호도에 대한 기여양상

대인지각 및 자기지각이 어떠한 양상으로 또래간 선호도에 기여하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 자기지각 및 대인지각과 또래간 사회적 선호도 점수와 사회적 영향력 점수의 상관관계를 구하였다. 긍정적 지

명수와 부정적 지명수의 차를 나타내는 또래간 사회적 선호도(SP)는 아동 전체로 볼 때, 부모/가족지각, 또래지각, 그리고 자기지각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고, 어머니보다는 아버지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사회적 선호도와와의 상관이 높았다(z=1.73, p<.05).

남, 여 아동을 따로 보면, 남아의 또래지각(z=2.75, p<.01), 자기지각(z=1.81, p<.05), 그리고 어

<표 8> 남아의 부모/가족과 자기지각의 사회적 선호도에 대한 중다 회귀 분석

예측변수	결과	Standardized Beta	p값	Adjusted R ²
1. 부모/가족	자기	.44	.0001	.19
2. 부모/가족	사회적선호도	.19	.0019	.03
3. 부모/가족	사회적선호도	.12	.0601	.06
	자기	.18	.0046	.06

<표 9> 남아의 부모/가족과 또래지각의 사회적 선호도에 대한 중다 회귀분석

예측변수	결과	Standardized Beta	p값	Adjusted R ²
1. 부모/가족	또래	.46	.0001	.21
2. 부모/가족	사회적선호도	.18	.0019	.03
3. 부모/가족	사회적선호도	.03	.6746	.12
	또래	.33	.0001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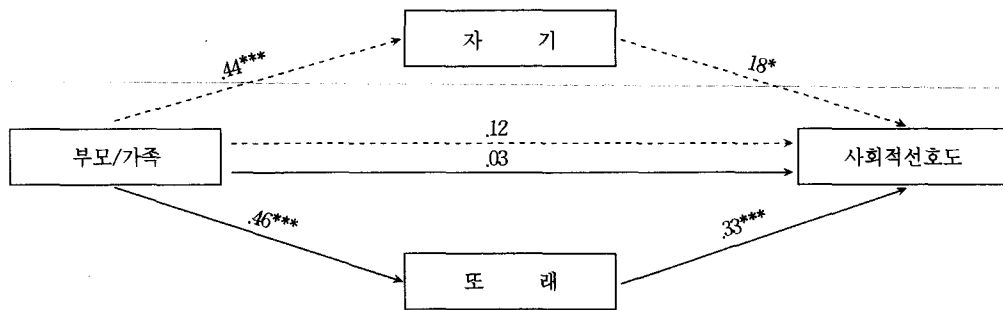
머니 지각($z=1.67, p<.05$)과 사회적 선호도와의 상관이 여아보다 높았다. 여아의 경우에, 어머니지각과 또래간 사회적 선호도는 유의한 수준의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고 아버지 지각과의 상관만 나타났다. 또래들로부터의 여아의 수용정도는 어머니에 대한 지각보다는 아버지에 대한 지각과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러한 대인지각 및 자기지각의 또래간 사회적 선호도와의 상관 분석결과, 어머니보다는 아버지에 대한 지각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남아의 사회적 선호도에 있어서 자기지각의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각 단계에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부모/가족에 대한 지각은 자기지각과 또래간 사회적 선호도를 각각 19%, 3% 수준에서 유의하게 예측해 주었다. 그러나 등식 3에서 부모/가족과 자기지각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부모/가족지각은 더 이상 또래간 사회적 선호도에 유의한 예측력을 지니지 않고, 자기지각을 통해서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3참조). 부모와 가족을 온정적이고 수용적이며 지지적이라고 지각하게 되면 남아는 자신에 대한 가치와 역량을 높게 인식하게 되어 아동의 또래간 사회적 선호도를 높여 주는데 간접적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래에 대한 남아의 지각도 <표 9>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사회적 선호도에 있어서 부모/가족 변인을 증개해 주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부모/가족의 사회적 선호도에 대한 단순회귀분석 결과 3%의 예측력을 지녔던 것에서 부모/가족지각과 또래지각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사회적 선호도에 대한 설명력은 12%로 증가하였고, 부모/가족에 대한 아동의 지각은 아동의 사회적 선호도에 더 이상 유의한 효과를 지니지 않았다. 즉 또래에 대한 지각이 포함되었을 경우에 부모/가족에 대한 남아의 지각과 사회적 선호도간의 직접적인 효과는 더 이상 발견되지 않은 반면에, 또래에 대한 남아의 지각을 매개로한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서만 또래간 사회적 선호도를 유의하게 예측해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 가족에 대한 지각의 긍정성은 또래에 대한 남아의 긍정적인 지각에 영향을 미쳐 이에 따른 결과로서 남아의 사회적 선호도는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여아의 경우는 자기지각의 사회적 선호도에 대한 매개변인의 역할은 발견되지 않았다(표 10 참조).

이로써 여아는 남아와는 달리 사회적 선호도에 있어서 부모/가족에 대한 지각의 자기지각을 통한 간접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그림 4참조).



p<.01, *p<.001 점선은 자기지가, 실선은 또래지각의 경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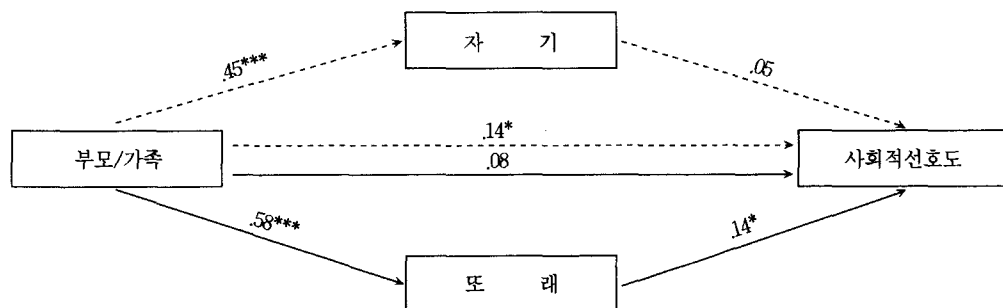
<그림 3> 남아의 부모/가족, 자기, 또래지각의 사회적 선호도에 대한 경로모형

<표 10> 여아의 부모/가족과 자기지각의 사회적 선호도에 대한 중다 회귀 분석

예측변수	결과	Standardized Beta	p값	Adjusted R ²
1. 부모/가족	자기	.45	.0001	.21
2. 부모/가족	사회적 선호도	.16	.0055	.03
3. 부모/가족	사회적 선호도	.14	.0319	.03
자기		.05	.4587	.03

<표 11> 여아의 부모/가족과 또래지각의 사회적 선호도에 대한 중다 회귀분석

예측변수	결과	Standardized Beta	p값	Adjusted R ²
1. 부모/가족	또래	.58	.0001	.25
2. 부모/가족	사회적 선호도	.16	.0055	.03
3. 부모/가족	사회적 선호도	.08	.2254	.04
또래		.14	.0373	.04



*p<.05, ***p<.001 점선은 자기지가, 실선은 또래지각의 경로임

<그림 4> 여아의 부모/가족, 자기, 또래지각의 사회적 선호도에 대한 경로모형

그러나 또래에 대한 여아의 지각은 <표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모/가족에 대한 지각의 간접적인 효과가 나타나, 또래에 대한 여아의 지각은 사회적 선호도에 대해 부모/가족의 영향을 증대해 주는 매개변인의 역할이 발견되었다.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의 분석결과 아동의 부모, 가족, 또래, 그리고 자기에 대한 지각들간에는 서로 상관을 지니며 이들의 문제해결 행동 및 사회적 선호도에 대한 기여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서 제기되는 논의점은, 아동의 대인지각 및 자기지각에 대한 일관성으로 부모, 가족과의 초기 경험은 또래와 자기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미쳐 이는 다시 아동의 사회적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1) 대인지각 및 자기지각간의 관계

부모, 가족, 또래, 그리고 자기에 대한 아동의 지각간에 상관이 발견된 것은 어릴때 경험하는 가정 내에서의 사회화 양식이 아동기의 대인관계 형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발달적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강조한 Gottman(1991)과 Ladd(1991, 1992)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 부모, 가족은 자아지각과 또래지각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타자로서 아동의 사회화에 있어서 부모, 가족에 대한 긍정적 지각의 중요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사회인지 구성요소인 대인지각과 대인 행동예상간의 유의한 정적상관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아동의 예상은 지각을 기초로 발달하며, 가족과 부모와의 경험이 아동의 사회적 관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Black과 그의 동료들(1995), 그리고 Sroufe와 그의 동료들(1990)의 연구결과를 수용할 수 있게 해 준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취할 행동에 대하여 예상을 하게 되고, 이러한 예상은 이전에 알고 있던 정보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일반화된 지각체계에 대한 이론적 개념을 실증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관성이 청소년기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Greenberg와 그의 동료들(Greener, Siegel, & Leitch, 1983)은 그들의 부모에 대한 청소년기의 애착의 질은 또래애착과는 상관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이 시기는 또래관계와 부모와의 관계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는 시기로 또래들과의 접촉은 증가하고, 또래들의 승인이나 가치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Brown, 1990; Kinderman, 1993)하는 반면에,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은 줄고, 정서적으로도 부모와 거리를 느끼기 시작하기(Collins & Russell, 1991; Larson & Richard, 1991)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가족과 또래간의 지각의 일치는 연령에 따라 감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욕구가 강하고 인지지각은 더욱 복잡하고 특징적인 양상을 띄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대인지각 및 자기지각과 문제해결 행동의 관계

아동의 문제해결 행동에 대한 부모 양육행동의 기여는 몇몇 선행연구들에서 확인되었으나 이처럼 다양한 대인지각과 문제해결 행동의 구체적인 관련양상이나 부모와 아동의 성에 따른 차이를 확인한 연구는 드물다. 부모/가족, 또래, 그리고 자기에 대한 아동의 지각 중 또래간 문제해결 행동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인 것은 것은 부모/가족에 대한 지각이었다. 이와같은 결과는 부모의 온정·수용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긍정적인 문제해결 행동에 기여한다는 MaColloch와 그의 동료들(1995)의 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한편 부모/가족에 대한 남아의 지각은 문제해결 행동에 있어서 자기지각과 또래지각의 매개변인의 역할이 나타나지 않고 직접효과만 나타났는데, 이는 자기지각은 문제해결 행동에서 부모/가족에 대한 지각의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Rudolph와 그의 동료들(1995)의 연구보고와 일치하는 것이

다. 이로써 남아의 자기지각은 부모, 가족의 영향력이 충분히 나타나지만, 또래간 문제해결 행동에 있어서 자기지각은 부모/가족의 효과를 증대해 주지는 않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가족에 대한 지각이 부정적인 아동은 또래간 문제해결 행동도 적대적이거나 회피적인 가능성이 있지만, 이러한 행동이 자기지각이나 또래지각을 통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다.

반면에, 자기와 또래에 대한 여아의 지각은 부모/가족과 또래간 문제해결 행동을 연결시켜 주는 매개변인 역할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여아의 문제해결 행동에 대한 자기지각과 또래지각의 효과는 부모/가족과의 경험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부모와의 관계를 토대로 얻어진 지각을 통해서 또래지각은 영향을 받으며 이는 또래와의 적응적이거나 부적응적인 문제해결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Hart, et al., 1990; Crick & Ladd 1986, 1987)와 상통하는 바가 있다. 또한 부모와 가족과의 경험은 또래지각에 영향을 미쳐 아동의 사회적 역량의 차이를 유발한다는 보고를 하면서 부모/가족변인의 간접적인 효과를 강조한 Ladd(1992)와 Renshaw 등(1992)의 연구와도 부분적으로 합치된 결과이다. 애착과 사회인지이론에서 제기한 부모/가족과의 경험은 아동의 사회적 관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연구자들의 주장이 여아의 경우에 지지되었다.

3) 대인지각 및 자기지각과 사회적 선호도와와의 관계

대인지각 및 자기지각과 사회적 선호도의 상관에서 아동전체로 볼 때, 어머니보다는 아버지에 대한 지각과 사회적 선호도와와의 상관이 더 높았고, 남아는 어머니지각과, 여아는 아버지지각과 사회적 선호도와와의 상관이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문제해결 행동과 비교해 볼 때, 매우 관심을 끄는 연구결과로서 대인 갈등상황에서의 아동의 행동에는 어머니가, 아동의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기술 습득에서는 아버지가 더 크게 영향을 미칠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부모자녀 관계 중 어느 관계가 자녀의 어떤

영역의 사회화에 보다 긍정적이고도 발전적인 효과를 지닐 수 있을 지에 시사해 주는 바가 있다.

대인지각의 사회적 선호도에 대한 경로분석에서, 남, 여 아동 모두 또래지각은 부모/가족에 대한 지각의 매개변인의 역할을 한다는 Rudolph와 그의 동료들(199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또래들과 잘 어울릴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 되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부모/가족에 대한 지각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부모와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하였던 유아들은 또래와 놀이할 때 또래를 괴롭히지도 않고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지도 않았다는 Sroufe와 Fleeson(1988)의 연구에 비추어 볼 때, 아동의 부모, 가족과의 경험은 또래지각에 영향을 미쳐 또래상황에서 아동의 사회적 행동을 유발하여 결국 아동의 사회적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남아의 경우, 사회적 선호도에 있어서 자기지각의 매개변인 역할이 발견된 것은 또래관계 속에서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아동의 사회적 어려움을 야기하는 주된 요인이 된다는 Rabiner등(1989)의 주장과 부분적으로 일치한 결과로서 사회적 선호도와 관련되는 한에 있어서는 여아보다 남아의 자기지각에 부모/가족이 더 민감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남아는 여아에 비해서 타인으로부터 받은 영향이 내적자아상이나 자기평가와 맞물려 사회적 선호도에 직접 효과를 갖는 것이다.

2. 결론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부모, 가족, 또래, 그리고 자기에 대한 아동의 지각들간에, 그리고 대인지각과 행동에상간에 나타난 상관을 통해서 볼 때, 부모, 가족과의 초기 경험은 자기지각 및 또래지각으로 일반화, 보편화될 수 있음을 알수 있다.

2) 여아와는 달리 남아는 어머니에 대한 지각과 문제해결 행동의 상관성이 아버지에 대한 지각보다 더 높아 어머니의 온정, 수용적인 양육행동에 대해 더

높은 민감성을 보인다. 이 부분은 남아가 그와 같은 가족관계 요인 또는 대인관계 요인에 의해 여아보다 덜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을 재검토하게 한다.

3) 여아의 자기지각과 또래지각은 남아와는 달리 부모/가족에 대한 지각의 효과를 문제해결 행동으로 전이시켜 주는 매개변인의 역할을 한다. 이는 대인관계 경험과 사회적 행동과의 관련성에 대한 일부 학자들의 주장이 아동의 성과 사회적 행동의 영역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계속적인 연구를 요한다.

4) 사회적 선호도는 어머니보다는 아버지에 대한 지각과의 상관이 더 높고, 남아는 어머니에 대한 지각과 여아는 아버지에 대한 지각과 상관이 높다. 문제해결 행동과 비교해 볼 때, 아버지에 대한 아동의 지각은 사회적 선호도와, 어머니에 대한 아동의 지각은 또래간 갈등상황에서의 아동의 문제해결 행동과 더 깊은 연관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자녀 관계중 어느 관계가 자녀의 어떤 영역의 사회화에 보다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효과를 지닐 수 있는 지에 대해 시사해 주는 바가 있다.

5) 또래지각은 남, 여 아동 모두 사회적 선호도에 있어서 부모, 가족과의 경험과 사회적 선호도를 연결시켜 주는 매개변인의 역할을 한다. 이는 사회적 선호도에 있어서 부모, 가족의 자녀에 대한 사랑, 관심, 지지는 친구들이 자기를 좋아할 것이라는 남, 여 아동의 자기지각과 친구들이 아동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는 또래지각에 긍정적인 효과를 지녀 결국 또래들로부터 수용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정적인 대인지각 및 자기지각은 역기능적인 사회적 행동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또래지위를 획득하게 되는 등의 사회적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볼 수 있다.

아직 생소하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대인지각의 일반화 경향과 또래역량과 연결되는 아동의 내재화된 지각간의 경로에 대한 본 연구의 발견은 대인지각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동의 대인지각에 따라서 또래역량은 차이가 있고, 또래 역량발달에 미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각기 다른 영향이 확인됨으로써 부

모나 가족의 지지, 그리고 이들로 부터 격려를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빈곤계층 아동이나 어린이동 가장세대의 보호를 위한 정책적, 실제적 측면의 배려를 유도하고, 또래역량의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차별적인 접근을 계획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만을 대상으로 대인지각 및 자기지각과 또래역량과의 관련성을 연구하였기 때문에, 연령에 따른 대인지각의 일관성이나 발달적 변화 양상을 확인할 수 없었다. 부모, 가족에 대한 지각이 아동의 또 다른 대인지각 뿐만 아니라 또래역량을 발달시키는 근원적인 요소라고 보았을 때, 유아기부터 청년기에 이르기까지 부모와 가족과의 경험이 이것들에 어떠한 양상으로 효과를 갖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부모, 가족에 대한 지각의 영향은 성숙이나, 환경요인에 의해서 변화가 가능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근래 들어서 부모 자신의 원가족에 대한 지각과 양육행동, 그리고 그 자녀의 대인지각의 발달은 상관이 있을 것이라는 연구자들의 주장에 따라 이에 관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는 바, 이러한 측면의 후속연구도 필요하다. 그리고 부모와 가족과의 경험이 아동의 실제 행동에 영향을 미쳐 이것이 또다른 사회적 행위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식의 행동적 기제를 통해 대인지각 및 자기지각과 또래역량과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1) 박영애(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 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2) 서찬원(1995). 부모의 양육유형과 자녀의 대인문제해결 능력과의 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3) 정영인(1988). 인기도에 따라 아동이 느끼는 외로움 및 학업성취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4) 정미자(1995). 아동의 또래수용도와 관련변인간

- 의 인과모형 분석.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5) Baker, A. K., Barthelemy, K. J., & Kurdek, L. A.(1993). The relationship between fifth and sixth graders' peer-rated classroom social status and their perceptions of family and neighborhood factor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4*, 547-556.
 - 6) Baldwin, M. W.(1992). Relational schemas and the processing of social information. *Psychological Bulletin, Vol. 112, No. 3*, 461-484.
 - 7) Bell-Dolan, D. J., Foster, S. L., & Sikra, D. M.(1989). Effects of sociometric testing on children's behavior and loneliness in school. *Developmental Psychology, 25*, 2, 306-311.
 - 8) Black, B., & Logan, A.(1995). Links between communication patterns in mother-child, father-child, and child-peer interactions and children's social status. *Child Development, 66*, 255-271.
 - 9) Blechman, E. A., & McEnore, M. J.(1985). Effective family problem solving. *Child Development, 56*, 429-347.
 - 10) Booth, C. L., Rose-Krasnor, L., & Rubin, K. H.(1991). Relating preschoolers' social competence and their mothers' parenting behaviors to early attachment security and high-risk status. *Journal of Social and Relationships, 8*, 363-382.
 - 11) Bowlby, J.(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s*, NY: Basic.
 - 12) Cassidy, J.(1988). Child-mother attachment and the self in six-year-olds. *Child Development, 59*, 121-134.
 - 13) Cassidy, J.(1990).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considerations in the study of attachment and the self in young children. In M. Greenberg, D. Cicchetti, & E. M Cummings(Eds.), *Attachment in the preschool years: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s*(pp. 87-113),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14) Cassidy, J., Parke, R. D., Butkovsky, L., & Braungart, J. M.(1992). Family-peer connections: The roles of emotional expressiveness within the family and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s. *Child Development, 63*, 603-618.
 - 15) Cohn, D. A.(1990). Child-mother attachment of six-year-olds and social competence at school. *Child Development, 61*, 152-162.
 - 16) Cohn, D. A., Patterson, C. J., & Christopolus, C.(1991). The family and children's peer relation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8*, 315-346.
 - 17) Coie, J. D., Dodge, K. A., & Coppotelli, H.(1982). Dimensions and types of social status: A cross-age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8*, 557-570.
 - 18) Collins, N. L., & Read, S. J.(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644-663.
 - 19) Crick, N. R., & Ladd, G. W.(1986).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outcomes of social strategies: Do they vary as a function of sociometric status and/or age?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Midwestern Society for Research in Life-Span Development*, Akro, OH.
 - 20) Dishion, T. J.(1990). The peer context of troublesome child and adolescent behavior. In P. E. Leone(Ed.), *Understanding troubled and troubling youth*(pp. 128-153). Newbury Park, CA: Sage.
 - 21) Dubow, E. F., & Ullman, D. G.(1989). Assessing social suppor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survey of children's social suppor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 1, 52-64
 - 22) Gottman, J. M.(1991). Finding the roots of children's problem with other childre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8*, 441-448.
 - 23) Greenberg, M. T., Siegel, J. M., & Leitch, C. J.(1993). The nature and importance of

- attachment relationships to parents and peers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2, 373-384.
- 24) Hartup, W. W.(1983). Peer relations. In E. M. Hetherington(Ed.), P. H. Mussen(Series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103-196). New York: Wiley.
- 25) Hatzichristou, C., & Hopf, D.(1996). A multiperspective comparison of peer sociometric status group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7, 1085-1102.
- 26) Kinnderman, T. A.(1993). Natural peer groups as contexts for individual development: The case of children's motivation in School. *Developmental Psychology*, 29, 6, 970-977.
- 27) Ladd, G. W.(1991). Family-peer relations during childhood: Pathways to competence and pathology?.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8, 307-314.
- 28) Ladd, G. W.(1992). Themes and theories: Perspectives on process in family-peer relationships. In R. D. Parke, & G. W. Ladd, *Family-Peer Relationships*(1-34).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Publishers, Hillsdale: NJ.
- 29) MacKinnon-Lewis, C., Volling, B. L., Lamb, M. E., Dechman, K., Rabiner, D., & Curter, M. E.(1994). A cross-contextual analysis of boy's social competence: From family to school. *Developmental Psychology*, 30, 3, 325-333.
- 30) McColloch, M. A., Gilbert, D. G., & Johnson, S.(1990). Effects of situational variables on the interpersonal behavior of families with an aggressive adolescen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1, 1-11.
- 31) Newcomb, A. F., Bukowski, W. M., & Pattee, L.(1993). Children's peer relations: A meta-analytic review of popular, rejected, neglected, controversial, and average sociometric status. *Psychological Bulletin*, 113, 99-128.
- 32) Patterson, C. J., & Kupersmidt, J. B. & Griesler, P. C.(1990). Children's perceptions of Self and of relationships with others as a function of sociometric status. *Child development*, 61, 1335-1349.
- 33) Putallaz, M., & Heflin, A. H.(1990). Parent-child interaction. In S. R. Asher & J. D. Coie(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pp. 189-216).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34) Rabiner, D., & Coie, J.(1989). Effect of expectancy inductions on rejected children's acceptance by unfamiliar peers. *Developmental Psychology*, 25, 3, 450-457.
- 35) Rubin, K. H., & Daniels-Beirness, T.(1983). Concurrent and predictive correlates of sociometric status in kindergarten and grade 1 children. *Merrill-Palmer Quarterly*, 29, 337-351.
- 36) Rudolph, K. D.(1993). Children's representations of self, family, and peers, social competence, and sociometric status.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 37) Rudolph, K. D. Hammen, C., & Burge, D.(1995). Interpersonal functioning and depressive symptoms in childhood: Addressing the issues of specificity and comorbidit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2, 3, 355-371.
- 38) Rueter, M. A., & Conger, R. D.(1995). Interaction style, problem-solving behavior, and family problem-solving effectiveness. *Child Development*, 66, 98-115.
- 39) Safran, J. D.(1990). Towards a refinement of cognitive therapy in light of interpersonal theory: I Theory. *Clinical Psychology Review*, 10, 87-105.
- 40) Sroufe, L. A., & Fleeson, J.(1986). Attachment and the construction of relationships. In W. Hartup & Z. Rubin(Eds.), *Relationships and development* (pp. 51-71).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41) Suess, G. J., Grossmann, K. E., & Sroufe, L. A.(1992). Effects of infant attachment to mother and father on quality of adaptation in preschool: From dyadic to individual organization of self.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5, 43-65.
- 42) Westen, D.(1991). Social cognition and object relations, *Psychological Bulletin*, 109, 429-455.
- 43) White, K. J., & Kinstner, J.(1992). The influence of teacher feedback on young children's peer preferences and percep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8, 5, 933-940.